

## 2019년 송년미사

※ 손전등 준비(해설자, 반주자), 신자들 숫자만큼의 끈

### 【입당 전 해설】

○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2019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그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런 가운데 지난 일 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잘못들을 뉘우침으로써 2020년 새해를 보다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는 하나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참회 전례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 입당성가는 105번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보내며 며칠 뒤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참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어렵고 슬픈 일 만은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 보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참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고, 당신 자녀들이 더욱 완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나면 나누어드린 끈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해설자가 양심 성찰문을 낭독할 때, 혹시 자신이 해당된다면 끈에 매듭을 묶어주시면 됩니다.

(※ 성당 내의 모든 전등 소등)

### 【양심 성찰】(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 하느님께서는 빛이시며, 빛 안에서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하느님 빛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내면의 부족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봉헌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자신을 성찰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간 반주 음악 또는 묵상 음악 연주)

○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현존케 하는 성가정을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까?

(잠시 침묵, 참회문 낭독 후 잠시 침묵)

○ 나는, 사랑의 사도직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으며, 나의 가정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께 봉헌하려고 노력하였습니까?

○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 시간, 건강, 지식, 재능, 지위, 명예, 재물, 권력 등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기쁘게 나누었습니까?

○ 나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며 이웃 전교와 복음 선포에 열

성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까?

○ 나는, 혹시 권력과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진리 선포에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 나는, 행여 배고프고 추운 우리의 이웃 형제자매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 나는, 혹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거스르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선불리 말한 적은 없습니까?

○ 나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미워하지는 않았습니까?

○ 나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겼습니까?

○ (잠시 침묵보다는 조금 길게)

○ 이제 우리 각자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매듭을 바라봅시다. 그 매듭이 2019년 살아온 우리들의 흔적입니다. 굴곡도 있고 울퉁불퉁하기도 한 매듭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순간 그 순간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매듭만큼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잠시 침묵)

○ 이제 그 끈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호주머니나 다른 곳에 넣어주십시오. 이제 불이 켜지면 함께 성가 479장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서서히 모든 전등을 켵니다)

(성가가 끝난 후)

○ 주님, 새해에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이웃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사랑을 보며, 이웃을 제 자신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나약함으로 한때 마음이 흐트러지더라도 또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실수하여 용기를 잃게 될 때, 당신 은혜로 저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당신 평화 안에서 목표와 희망을 되찾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과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 모두 일어서십시오.

<대영광송>

<본기도>

†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성탄으로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완성하셨으니, 저희를 인류 구원의 샘이신 성자의 지체가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말씀의 전례>

<독서>: 요한 1서 2,18-21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이 온다고 여러분이 들은 그대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의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아무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오늘 화답송은 436장 2절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도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도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5, 9-13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강론>

<보편지향기도>

1. 성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빛이신 주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땅에 파견된 성직자들이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2.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이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느끼고 실천하게 하소서.

3.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약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당신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의 은총으로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본당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본당 신자들이 애덕의 실천인 봉사를 통하여 공동체적 일치를 도모하고 서로를 위한 저희들의 삶이 깊고 넓고 평화롭게 하시며 겸손과 봉사와 나눔을 통하여 숭선수범의 은은한 삶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소서.

<성찬의 전례>

○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봉헌성가는 25번입니다.

<예물 기도>

† 주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감사송>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 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뵈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 거룩하시도다!

<감사기도 2양식>

<주님의 기도>

<평화 예식>

† 오늘은 평화의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를 나누십시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어린양>

<영성체>

○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우리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흠송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면서 성체성가는 188번입니다.

<영성체 후 묵상>

오늘 독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인간의 실존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날과 해는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하느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

†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을 도와주시며 다스리시니, 오늘도 내일도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덧없는 현세의 사물로도 위안을 받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공지사항>

<파견예식>

<장엄강복>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 온갖 축복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내리시어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 동안 건강하고 무죄하게 저희를 보호하소서.

● 아멘

† 온전한 믿음과 큰 희망과 끝까지 묵묵하게 실천하는 애덕과 거룩한 인내를 저희에게 주소서.

● 아멘

† 저희의 모든 나날과 행동을 평온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아멘.

†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 아멘.

<파견>

† 주님을 찬미합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오늘 미사 중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77장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이것으로 2019년 송년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사 후에는 나눔의 잔치가 있으니 함께 해 주십시오.